

지역 백화점은 벌써 '가을 모드'로

롯데, 남성복 매장 가을맞이 리뉴얼
신세계, '패션 초대회' 개최 차별화
NC, 1층에 '럭셔리 갤러리' 등 입점

절차 짧아지는 봄과 가을. 달라지는 계절의 변화에 백화점들이 민첩하게 움직이고 있다. 광주 지역 백화점들이 추석을 앞두고 벌써부터 '가을 모드'로 전환 중이다.
추석을 20여일 앞둔 1일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대부분의 의류매장에서 여름상품을 빼고 절반 이상을 가을상품으로 교체했다. 이는 예년에 비해 1주일 정도 빠른 것으로, 더위가 꺾이지 않은 상황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다.

매장마다 가을 상품을 전면 배치해 기다건·가족재킷·머플러·블라우스 등 인기 아이템 상품 비중을 대폭 늘렸다. 매장 분위기도 올 가을 히트예감 컬러인 '삼바 레드' '미코노스 블루' '아사히 펄프' 계열의 상품으로 구성했다.
남성복 매장에 대규모 리뉴얼 공사를 통해 새로운 브랜드를 선보일 예



추석을 20여일 앞둔 1일 백화점 매장들이 가을 시즌을 맞아 블라우스 등 인기상품으로 교체, 진열하고 손님들 받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정이다. 유니섹스 바라이 강화되면서 여성 전용 브랜드 'DKNY' '피어리' '시스템 올림' 등이 남성 컨셉포러리 상품군을 새롭게 선보인다.
광주신세계 역시 '가을패션 초대회'를 열고 가을 시즌을 시작했다. '주말 한정 가을 특보' '진 페스티벌' 등 다양한 기획행사가 진행 중이다. 실크 차림복 등 침구류와 가을 접퍼, 원피스, 청바지 등을 대거 준비했다.
특히 오는 5일까지 1층 이벤트를 통해 진행되는 '유명 수제화 특집전'에서는 '세라' '미소페' 등의 유명 수제화 브랜드가 참여 9만~10만원 대의 제품으로 가을을 맞는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다는 계획이다.
옛 현대백화점에서 간판을 바꿔달고 영업한 지 4달이 돼가는 NC백화점 광주점은 기존 운영 브랜드를 유

리(병행수입 상품 판매점)이 들어섰고 젊은층을 겨냥한 NC(이랜드리테일)의 자사브랜드가 대거 입점을 앞두고 있다.
이종찬 롯데백화점 광주점 영업총괄팀장은 담당자는 "짧아진 불과 가을로 매출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시즌 준비가 더욱 까다로워졌다"며 "강력한 인상을 주는 이류 상품과 다양한 마케팅으로 소비자의 마음을 잡는 게 더욱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전남 지역 농어가 및 농어업 인구 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으며, 농어가 경영주의 고령화도 매년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호남지방통계청이 지난 29일 최근 5년간 전남지역 농어업을 조사한 결과 2012년 농가는 16만4248가구, 농가인구는 37만614명으로 지난 2008년의 18만5569가구, 43만8961명에 비해 각각 11.5%, 15.6%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국의 농가는 5.0%, 농가인구는 8.6% 감소했다. 2012

전남 농·어가 감소세 뚜렷

호남통계청 조사, 5년전보다 11.5%, 5.5%나 줄어

년 농가 평균 가구원수는 2.3명으로 2008년 2.4명에 비해 0.1명 줄었으며 전국의 2.5명에 비해서도 0.2명이 적었다.
이 같은 현상은 젊은 층의 농업 기피현상과 고령화에 따른 농업포기, 전업 등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전남지역의 농가 경영주 고령화 속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빨라 2012년 58.9%로 2008년 53.2%에 비해 5.7%p 증가했다. 전국 고령화율은 3.2%p 증가한 51.3%였다. 2012년 전업농가는 9만6644가구

로 2008년에 비해 무려 21.1% 감소했고 반면 겸업농가는 6만7604가구로 2008년 대비 7.1% 증가했다.
작년 3ha이상 대규모 경작농가는 1만8858가구로 3.3%가 증가했고 1ha미만 소규모 경작농가는 10만1586가구로 11.7% 감소했다.
2012년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1억 원 이상 농가는 3315가구로 54.5%가 증가했고 1000만원 미만 농가는 11만2162가구로 11.1% 감소했다.
2012년 전남지역 어가는 2만1578가구, 어가인구는 5만2924명으로 2008년 대비 각각 5.5%, 14.1% 감소했다.
한편 광주 지역 농가는 2012년 1만1852가구, 농가인구는 3만2903명으로 2008년 대비 각각 1.8% 증가, 8.7% 감소를 기록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주간 증시 포커스

글로벌 경기 회복세... KOSPI 반전 시도 전망

이번 주 증시는 다시금 글로벌 경기와 9월의 핵심 이슈인 출구전략과 미국·독일의 정치적 이슈에 주목할 것이다. 출구전략의 대전제가 충분한 수준의 경기 개선이고, 연준이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점진적인 과정을 견지할 것이라는 측면에서 9월 양적완화 축소가 물고 올 파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한다. 문제는 부실신용과 관련된 우려가 될 것인데

있다. 지난해 미국 2분기 GDP가 전기 대비 2.5%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며 예상수준을 크게 상회하였는데, 정부지출은 예상치 보다 하락한 반면 민간소비를 투자가 성장세를 주도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로 인해 미국 자동차 시장은 올해 들어 연평균 15%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면서 과거 3년 대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미국 출구전략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6월 이후 현재까지의 KOSPI와 현대차의 수익률 꺾은 +16.2%p로 크게 확대되고 있다. 현대차는 파업 이슈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 속에서도 외국인 매수세가 집중되면서 주가가 연중 최고 수준까

지 상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증시에서 삼성전자 이후 사라졌던 주도주로서의 위상을 되찾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따라서 9월 국내 증시는 양적완화 축소 우려 및 시리아 공습 가능성 등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대외적인 변수가 산재해 있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경기지표 개선세가 지수 변동폭을 제한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박종모 <신한금융투자 수완지점 PB>

은행 추석맞이 증기·자영업자에 15조 펀다

작년보다 5조 늘어 사상최대

광주은행을 비롯한 시중 은행들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일시적인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 15조여원을 지원한다. 역대 최대 규모의 추석 명절 유동성 지원으로 금융감독원 등 금융감독 당국의 '따뜻한 금융' 실천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에 따른 것이다.
1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IBK 기업은행, 농협은행, 국민은행, 광주은행·부산은행 등 11개 은행은 추석 특별 경영안정자금 명목으로 10월 중순까지 15조3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조여원에 비해 크게 늘어난 규모다.
은행별로는 기업은행 3조원, 국민은행·우리은행 각각 2조5000억원, 농협은행 2조원, 외환은행·신한은행 1조5000억, 하나은행 8000억, 부산은행 5000억원, 전북은행·광주은행 각각 2000억원, 대구은행·경남은행 각각 3000억원 규모다.
광주은행은 3000억원의 만기연장자금을 편성해 만기가 도래한 대출금

에 대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중소기업이 원하면 만기를 연장해 주기로 했다. 광주은행의 추석 특별 자금대출은 노무비나 체불임금 지급, 원자재 구입자금, 긴급 결제자금을 지원한다. 업체당 지원한도는 최고 40억원 이하다.
기업은행은 일시적 자금 부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 작년의 1조원보다 크게 늘어난 3조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원자재 결제와 임금,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오는 10월 4일까지 기업당 3억원 한도로 공급한다.
농협은행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월 4일까지 유동성 자금 2조원을 지원한다. 신규자금 뿐 아니라 같은 기간에 만기 도래하는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도 포함한다. 추석명절 특별우대금리 0.3% 포인트를 적용한다.
국민은행은 지난해보다 5000억원 늘어난 2조5000억원의 특별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우대금리를 최대 1% 포인트 내에서 제공한다.
/최재호기자 lion@연합뉴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사장 김재수)는 안전성 확보를 통한 수출 확대를 위해 수출 농식품의 잔류농약 검사비, 식품위생 검사비, 대만 수출용 사과 안전성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잔류농약 검사비는 수출물류비 지원품목 중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한 품목의 농식품 수출자 및 수출농가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전체 검사비의 80%(품질관리 다분분 분석 검사비용 기준)까지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식품 위생 검사비는 농식품 전반에 대해 검사비의 80%까지 지원하는데 검사내용은 미생물, 기생충, 중

금속, 보존료, 산화방지제 등이다.
aT는 한국산 사과에 대한 대만의 전수검사 조치에 따른 수출사과 안전성 확보 및 수출장애평감 해소를 위해 대만 수출용 사과 안전성 검사비 지원비도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대만 수출 사과 등록농가이며, 검사비의 80%까지 지원된다.
검사기관은 국립농산물관질관리원 및 관리원 지정 민간 검사기관이다. 수출농산품 안전성·위생검사비의 지원을 희망하는 수출업체는 aT 수출지원시스템(http://atess.at.or.kr)을 통해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aT, 수출 농식품 농약 검사비 등 지원

축산농가 환풍기 지원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중수)는 30일 축산 농가 생산성 향상을 위해 도내 24농가에 1500만원 상당의 '축사용 이동식 환풍기'를 지원했다. <농협전남본부 제공>



축산농가 환풍기 지원

HNT 하나투어

www.HanaTour.com

모든나라여행사 (전남대정문)	062)521-2100
윤기주하나투어 (신세계 이마트 1층)	062)360-0166
세정투어여행사 (상무지구 세정아울렛 3층)	062)464-8000
남해여행사 (목포 한시랑방원)	061)287-4100

추석 연휴에 떠나는 마카오 & 홍콩 무인출발 9월 20일 단, 하루! ★20석 한정★

[CHFP05-NX2] (하나백제주일) 마카오/홍콩(2박) 4일	899,000원~
[CHFP07-NX1] (하나백제주일) 마카오/홍콩/심천 4일	799,000원~

여행상품 가격포함내역: 공항이용료, 전정보험료,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송/숙박/식사요금, 가이드비용, 여행보험료, 현지관광입장료 등 반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 포함. 개별여행상품은 미적용. 유류세는 상기상품 가격에 별도지불되며 항공사별로 상이하므로 확인바랍니다. ■부족한 시정에 의해 여행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습니다. 선택경비 선택관광경비, 안내원봉사료 등은 고객님의 선택에 의해 현지에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출발일/출발상품에 따라 선택경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중구로 공평동 1번지 (하나투어) ■관광사업자 등록번호 : 제26004-1993-6(중구구) ■관광블로그 Tel 1577-1233 ■22억1천만원 보증보험 가입 ■숙소:2급호텔이상 ■교통편:항공/버스/페리 ■항공사별로 유류할증료 인상금액이 상이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문의바랍니다